

韓銀 올 성장률 전망치 4.5%로 상향조정 의미

콜금리 인상위한 사전정지작업?



“설비·건설투자 회복”...12일 금통위 결정 주목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5%로 소폭 상향조정했다.

상반기중에 수출의 높은 증가세와 소비·투자의 개선으로 성장률이 기대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조정폭이 0.1%포인트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볼 만한 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기존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등 가격요인이 악화되고 있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우리 경제가 당분간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설비·건설투자 증가세 뚜렷= 작년 12월 한은이 발표한 ‘2007년 경제전망’과 비교해 수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올해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7.5%로 예측돼 당초 전망치(6.0%)를 크게 웃돌았다.

상반기중 설비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6%

나 증가, 투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건설투자 역시 신도시 기반공사의 착공과 비주거용 건축의 개선 등으로 올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역시 당초 전망치(1.6%)를 웃도는 수치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4.1%로 기존 전망치(4.0%)보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한은은 소득여건과 소비심리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영업의 업황부진과 가계채무부담 등으로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당초 전망치(10.8%)보다 높아진 11.0%로 예측했으며 상품수입은 10.2%로 기존 전망치(11.1%)보다 오히려 하향조정됐다.

◇성장률 상향조정 근거= 연간 경제성장률을 4.4%에서 4.5%로 상향조정할 주된 요인은 우선 상반기 실적의 호전을 꼽을 수 있다.

당초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4.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적은 4.4%로 나왔다.

1분기의 작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4.0%였으나 2분기에는 4.7%로 대폭 호전된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전기대비 성장률에서도 1분기 0.9%에서 2분기는 1.4%로 급등한 것으로 한은은 파악했다.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크게 회복되며 따른 것이다.

◇고용사정 소폭 개선, 물가상승률은 하향조정= 올해 취업자수는 29만명으로 기존의 예상 수준보다 1만명이 늘었다.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조정이다.

민간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실업률은 당초 3.6%로 예상됐으나 이번 수정에서는 3.3%로 하향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 원유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3%로 예상됐다. 기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6%, 근원물가상승률 2.7%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다.

◇콜금리 인상을 위한 애드벌룬(?)= 한은 스스로도 0.1%포인트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재현 한은 조사국장은 “문제는 흐름”이라며 “경기흐름이 당초 전망대로 1분기 바닥에서 점차 상승국면을 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다. 경기에 대한 한은의 종합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는 이번 경제전망만을 토대로 볼때 한은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콜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무난”

LG경제연구원, 환율 하락·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 중반까지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들이 연간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5%)과 연평균 환율(925원), 인구(4천845만6천명), GDP의 종합물가지수인 디플레이터(1%) 등 여러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된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0달러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372달러로 당시 경제성장률은 5.0%, 연평균 환율은 955.5원, 인구는 4천849만7천명, GDP 디플레이터는 -0.4%였다. 그러나 올해 연평균 환율이 920원대 중반으로 달러당 30원 정도 하락했고 경제성장률도 4%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 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은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2005년과 작년에는 환율 하락 요인이 가장 컸지만 올해에는 환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율 하락 폭이 지난해(69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경제성장률은 4% 중반으로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4년 9천459달러에서 1995년 1만1천432달러로 1만 달러 시대를 진입했으며 1996년에는 1만2천197달러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생활음식 시식회

10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동원F&B 주최로 ‘생활음식 시식회’가 열리는데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이 참치 미역국, 베이컨 김치찌개, 팔각밥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가세 불성실 신고 고소득자 광주·전남북 1,200명 집중 관리

국세청 현금수입 입회조사

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25)을 맞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광주, 전남·북 1천200여명을 포함해 1만6천800여명을 집중 관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만6천8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 유형은 수집된 과세자료에 비해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입수수가 높지 않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1천34명이고 ▲타인명의로 영업 하거나 업황 인지도에 비해 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유흥주점 등 음식점업 사업자가 6천855명이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점과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사우나·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2천702명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 사업자 4천84명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거나 이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천185명 등이다.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로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변리사는 특허 출원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출원·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해 신고 누락하고 있다고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법무사는 소장, 답변서 작성 등 등기관인 이외 사건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수료 대부분을 신고 누락하고 음식점은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로 은행계좌에 입금해 신고 누락하며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탈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러브호텔(모텔)은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 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금액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 실적 파악결과와 부가세·과표증거물 등 신고 성실도 자료,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종대기자 jidee@

공동주택 실내소음 45dB이하면

도로변 근처 건축 허용

내년부터는 도로변에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일 경우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실내소음 기준(65데시벨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이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만 실내소음 기준만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입주민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실내소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로변에 더 가까이 지을 수 있게 돼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문고 등 주민복지시설을 주택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단지 내부에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에 복지시설을 만들게 되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단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 이등복지 예산 OECD 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경상대 배화옥(사회복지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급여 비중과 보육·조기교육 서비스 비중 등을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해 ‘보건복지포럼(6월호)’에 발표한 ‘OECD 국가 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10일 밝혀졌다.

조사에서 가족급여는 OECD 30개국 평균인 GDP 2.4% 수준이었으나 우리나라(2003년)는 0.2%로 터키(0.0%)에 이어 최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급여로 GDP 대비 0.2% 수준의 서비스 지원만 이뤄지고 있을 뿐 현금지원은 없고 세금공제 같은 세제적인 효과도 미미해 가족급여를 통한 아동복지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육성부르크와 호주·오스트리아 등은 현금지원만 GDP의 3.5~2.5%로 OECD 평균치를 넘었고 룩셈부르크(4.1%)와 덴마크(3.9%), 프랑스(3.8%), 노르웨이(3.6%), 스웨덴(3.5%) 등은 가족급여가 GDP 3% 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가 제공하는 미취학 아동용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요즘 직장인들 생각은?

차기 대통령, 실업문제 해결해야

취업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는 자사 사이트 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5.48%가 ‘실업문제 해결’을 꼽아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부동산, 집값 안정’(20.97%), ‘기름값 등 생활물가 안정’(19.89%), ‘출산, 육아문제 해결’(10.22%)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남성은 ‘실업문제 해결’(43.00%), ‘부동산, 집값 안정’(22.00%), ‘기름값 등 생활물가 안정’(17.00%) 순으로 지극한 반면 여성은 ‘실업문제 해결’(26.74%), ‘기름값 등 생활물가 안정’(23.26%), ‘출산, 육아문제 해결’(19.77%)등 순이어서 남녀의 답변 분포는 차이를 보였다.

민병도 대표는 “채광 청년실업을 15.4%, 4년제 대학 졸업자의 44%가 실업자라는 통계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대선 주자들은 실업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손해 보면서도 회사 일한다”

직장인들 절반 가량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직장인 포털 비즈몬(www.bizmon.com)과 함께 직장인 1천239명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가 ‘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7.0%, ‘보통이다’는 23.6%였다.

기업형태별로 대기업이 80.7%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으며, 외국계 기업(76.0%), 중소기업(44.5%), 공기업·공공기관(15.6%) 등의 순이었다.

직급별로 과장(52.2%)을 중심으로 대리(49.5%), 사원(48.3%) 등 하위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부장(47.2%)과 이사(47.7%)로 올라가면 그 비율이 다소 떨어진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나경인테레비날	무등파크호텔 연회장(웨이터) 경력 및 신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231-1563
㈜금강속제2공장	CNC선반/MCT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2	061-381-2720
㈜유경하이테크	지재관리/재고관리/지재구매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12	062-956-8454
하임피자(충장점)	매장관리 직원 및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223-4165
영캐드신업(주)	플랜트배관설계/CAD 엔지니어 사원	고졸/경력2년	2000~2200	07/13	061-682-0714
대신네트웍스	웹프로그래머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07/13	062-223-8282
㈜일광이엔티	경리/회계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14	062-954-2204
광주인텔(주)	설비유지보수 및 자동화 유틸리티 유지관리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14	062-944-0111
글로벌광통신(주)	광케이블 제조 기능직(경력, 신입)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4	062-973-6114
신일가스(주)	영업 및 영업관리(신입용기)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14	062-951-0011
풍일산업(주)	생산 기술 / 경력자 모집 로봇트 및 PLC 운용 가능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5	062-941-7891
디자인출산	[책·인쇄물] 물류 납품 기사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18	062-226-3622
남영건설(주)	2007년 남영건설(주) 정규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351-3700
엘지전자(주)호남센터	LG전자 서비스센터 취업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510-619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